

- 주요 뉴스: 10월 FOMC, 금리 0.25%p 인하 및 양적긴축 종료, 12월 금리인하는 미확정
 - 韓美 관세협상 타결, 對韓 일부 품목 관세 인하. 한국은 對美 3500억달러 투자
 - 미국, 美中 정상회담은 30일 11시. 중국 국영기업은 미국産 대두 대량 구입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정책 재량권 확보할 필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0월 FOMC 결과, 美中 정상회담 전망 등이 영향
 - 주가 약보합[-0.00%],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1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상승 출발했으나, 12월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약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Adidas의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큰 폭 상승
독일은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거래량 감소하며 약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424.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6.5원, 0.36%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0/29일	10/28일	전일대비			10/29일	10/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90.6	6,890.9	-0.00%	국채 금리 10y	미국	4.08%	3.98%	+10bp
	유럽	575.40	575.76	-0.06%		독일	2.62%	2.62%	-0bp
	중국	4,016.3	3,988.2	+0.70%		영국	4.39%	4.40%	-1bp
	일본	51,308	50,219	+2.17%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081.2	4,010.4	+1.76%		중국	41bp	41bp	+0bp
	달러지수	99.13	98.67	+0.47%	위험 지표	EMBI+	-	280	-
환율	유로화	1.1601	1.1651	-0.43%		VIX	16.92	16.42	+3.05%
	엔화	152.73	152.11	-0.41%		WTI유	60.48	60.15	+0.55%
	위안화	7.0985	7.0992	+0.01%	원자재	구리	526.4	517.1	+1.79%
	원화	1,431.7	1,437.7	+0.42%		금	3,930.1	3,952.1	-0.5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0월 FOMC, 금리 0.25%p 인하 및 양적긴축 종료, 12월 금리인하는 미확정

- 연준은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 연초 이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 다만 실업률은 연초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
- 이번 회의에서 12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해당 결정에 찬성. 마이런 이사와 캔자스시티 연은 슈미드 총재는 각각 0.50%p 인하 및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 한편, 연준은 12/1일부터 양적긴축(QT)을 종료한다고 발표. 이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 압력이 높아지자 금융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회의에서의 금리인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위원들도 향후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발언. 아울러 노동시장은 점차 냉각되고 있고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이며, 관세 효과 제외 시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에서 멀지 않다고 언급
- 전문가들은 12월 금리인하가 불확실하다는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에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만일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평가(Northlight Asset Management). 또한 향후 연준의 금리결정 기준이 물가와 고용 가운데 무엇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eToro)
- 이번 회의 이후 CME의 FedWatch는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대폭 낮춰서 제시(90%대→67%). 또한 내년까지 3회의 금리인하(금년 12월, 내년 4월 및 7월, 각 0.25%p)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韓美 관세협상 타결, 對韓 일부 품목 관세 인하. 한국은 對美 3500억달러 투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 이에 따르면,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對美 투자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연간 상한 2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분하여 집행. 또한 상호관세는 15%로 유지하고, 일부 품목 관세는 인하(자동차:25%→15%,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 미국, 美中 정상회담은 30일 11시. 중국 국영기업은 미국産 대두 대량 구입

- 미국 백악관은 30일 11시(한국 시간) 美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보류 및 미국의 對中 추가 관세 철회를 기대. 다만 중국은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교류를 가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피력
- 중국의 국영 곡물기업 COFCO는 18만톤 규모의 미국産 대두를 매입. 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의 미국産 대두 수입은 처음. 시장에서는 美中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진 이번 매입을 양국의 상징적인 ‘화해 신호’로 인식

■ 미국 9월 잠정주택판매, 전월비 보합.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결정

- 9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보합을 나타내 8월(4.2%) 및 예상치(1.7%) 대비 낮은 수준.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가 하락했으나 고용 둔화 여파가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NAR). 또한 섣다운 역시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0.25%p 낮춰 2.25%로 결정했다고 발표. 현재 금리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나 미국에 의한 관세 충격 장기화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경제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부연

■ 미국 의회에산처, 섣다운 피해 규모 140억달러로 추정. 4/4분기 GDP 감소 예상

- 섣다운에 의한 경제 피해가 최대 140억달러에 이른다고 발표. 이에 따른 영향에 4/4분기 GDP가 당초 예상보다 1%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정책 재량권 확보할 필요

- 베센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정책 재량권을 제공하여 인플레이션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발언. 이번 발언 이후 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승하고 엔화는 강세.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정책 관련 언급을 자제하지만, 그 동안 저금리 정책을 선호한다고 밝혀 일본은행에 부담을 준다는 평가도 존재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3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GDP, 10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ECB 통화정책회의, 유로존 3/4분기 GDP,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시도, 민간 신용시장 위험 증폭시킬 소지 - Financial Times

(Deregulation will pour extra fuel on the private credit bonfire)

- 최근 일부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파산 등으로 신용시장 위험 확산 가능성 제기. 또한 IMF는 미국계 은행에 대해 비은행권 대출 익스포저 규모가 과도해 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 이를 감안한다면, 관련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
- 하지만, 트럼프는 은행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연준도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을 시도. 이는 대출의 급격한 확대를 유도하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손실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초래. 시장에서는 대규모 민간 신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Blackstone)

■ 미국의 기록적인 주가 상승, 정치가 아닌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결과 - 블룸버그

(Record stock prices aren't the result of politics)

-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성과로 주장. 하지만, 현재 주가는 매출·장부가차·이익 전망·배당 등 모든 측면에서 고평가 상태. 장기 밸류에이션 지표인 CAPE는 닷컴버블 붕괴 이후 처음으로 40을 상회했으며, 이러한 고평가는 빅테크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현상
- 기술주는 증가한 이익으로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지만, AI 지출 급증으로 향후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주가는 정치가 아닌 밸류에이션의 결과이며, 현재의 증시 고평가 국면에서는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낮아질 우려

■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 고수, 신뢰성 훼손과 물가불안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Is the Fed's Inflation Target Still 2%?)

- 연준은 인플레이션(3% 수준)이 목표치(2%)보다 높음에도 10월 금리인하를 단행. 하지만, 목표치를 초과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투자자의 단일한 기대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존재. 특히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26년까지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의 중립금리가 적절함을 시사
-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금리인하 요구)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여건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은 연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 또한 이러한 행태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도 초래

■ **미국 트럼프의 대내외 정책, 중국·러시아에도 효과 발휘하도록 쇄신할 필요 - 블룸버그**

(Why China and Russia Aren't Scared of the US)

-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군사적 개입, 관세부과 등으로 자국의 이익 확보를 추진. 그러나 이는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비생산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 이처럼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트럼프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보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심화 등의 문제에 직면. 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
- 첫째, 이란의 핵시설 폭격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장기 전략 마련이 중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게는 이와 유사한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
- 둘째, 동맹국과의 유대 강화. 러·우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유럽의 지원이 절실.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도에도 호주 등의 도움이 요구.
- 셋째, 섯다운 등의 국내 상황 악화가 적대국에게는 유리한 신호로 인식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 **미국 노동시장, AI 도입에 따른 사무직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 현실화 - WSJ**

(Tens of Thousands of White-Collar Jobs Are Disappearing as AI Starts to Bite)

■ **미국 섯다운 장기화, 관련 피해 일부는 영구적 손실로 남을 소지 - Financial Times**

(US shutdown clouds economic outlook)

■ **희토류·에너지 부족 등 유럽의 불리한 지리적 여건, 현명한 정책 결정 요구 - Financial Times**

(Europe and the curse of ge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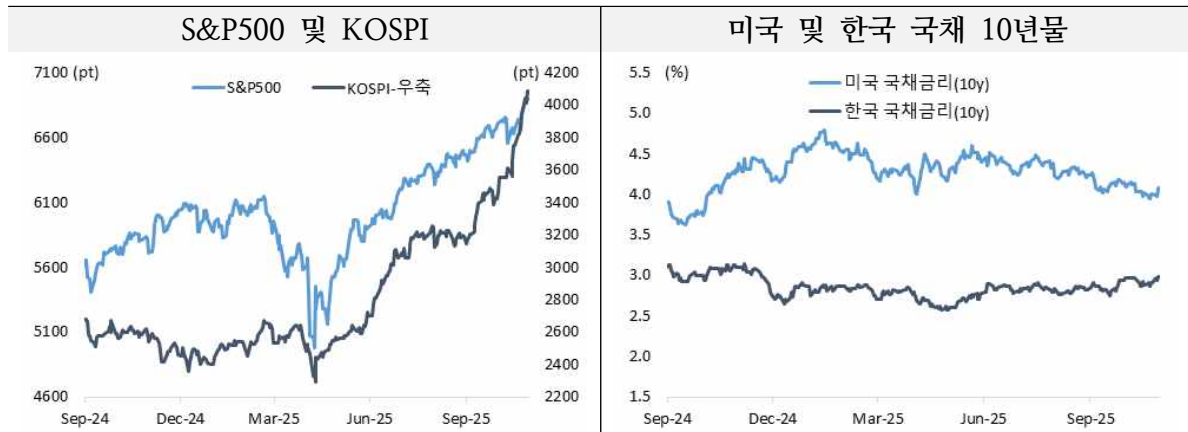
■ **중국의 對美 무역전쟁, 실질적인 싸움 없이 승리를 쟁취 중 - 블룸버그**

(China Is Winning the Trade War Without F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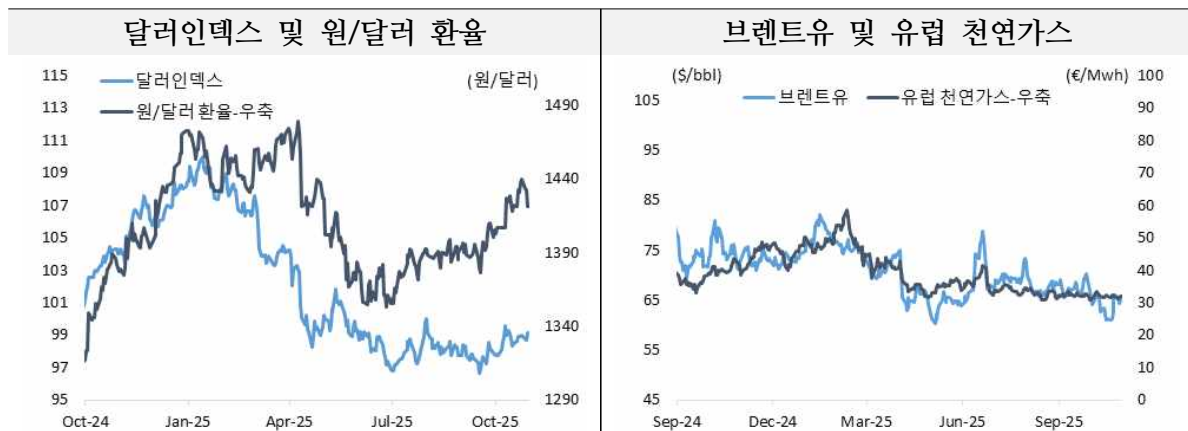
■ **글로벌 태양광 발전 붐, 미국의 회의론 속에서도 경제성 향상 - Financial Times**

(The global boom in solar - with or without the U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